

이동원 목사 차남 故 이범 집사 천국환송예배 열려

이동원 목사의 차남 故 이범 집사의 천국환송예배가 16일 고인이 출석하던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진행됐다.

현장 예배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유가족과 지인들을 비롯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과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박성진 학장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천 여명이 고인의 삶을 추모했다.

1978년 7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이범 집사는 미국 토마스우튼 고등학교와 메릴랜드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한국 한동대학교 로스쿨과 미국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미국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고인은 EA 스포츠/게임회사와 AT&T에서 근무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과 한국 지구촌교회,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봉사했다.

고인은 한동대 로스쿨 재학 중 만난 아내 고유현 자매(40)와 결혼해 아들 이재성(9)군을 뒀으며, 2020년 2월 대장암 수술 후 투병하다가 10



이동원 목사의 차남 故 이범 집사 천국환송예배에서 설교하는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 ©기독일보

월 8일 4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천국환송예배는 김우준 목사의 집례로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의 기도 후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찬양팀이 조가를 불렀다. 한국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영상 조사에 이어 이종용 목사가 “곧..머지않아”(살전 4:13-1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추모사는 이범 집사와 함께 성창

했던 친구 메릴랜드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 미셸 리 목사와 잔 리씨가 전했으며 이동원 목사가 유가족 대표로 나와 예배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배는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종용 목사는 생전 고인이 보여준 믿음과 겸손했던 삶의 자세에 대해 증거했으며,

천국에서 재회 할 기쁨과 소망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목사는 “범 형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곁으로 갔다. 범 형제는 지금도 살아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있다”며 “남겨진 우리는 이범 집사의 뒤편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자”고

위로했다.

조사를 전한 최성은 목사는 “올해 초 만난 이범 집사는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고 성품도 온유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회고하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구촌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축도에 앞서 추모사를 전한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는 “인생이란 나이의 길고 짧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수님 계시오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고 이범 집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바이든은 진정한 신자인가’ 놓고 가톨릭 주교들 이견차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가톨릭 신앙과 관련해,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들 사이에서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진정한 제자로서의 투표(Voting as an Authentic Disciple)’라는 주제의 온라인 가상회의가 인디애나주 세인트 메리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 가상 회의에서 로버트 매켈로이(Robert McElroy) 샌디에고 가톨릭 주교는 바이든이 낙태에 옹호적인 입장 때문에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다뤘다.

매켈로이는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입장 때문에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부정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정은 가톨릭의 사회 교육을 단일 문제로 축소하기 때문에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낙태를 “본질적으로 악한 것(intrinsically evil)”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낙태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빈곤 퇴치 및 기후 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과 공공정책에 있어 낙태 문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이고 결

정적인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워싱턴 주 스포칸 지역의 토머스 달리(Thomas Daly) 주교는 ‘국립 가톨릭 기록(National Catholic Register)’과 가진 14일 인터뷰에서 매켈로이 주교가 ‘윤리 신학자(moral theologian)’임을 지적하며 “그는 낙태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우선하는(preeminent)’ 도덕적 문제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그의 가톨릭 신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난 9월 그의 가족과 같은 델라웨어 주 월밍턴 교구에 속한 여성의 나레이션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Youtube/US Hub

담은 캠페인 광고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선거 동영상에는 “조 바이든은 40년 이상 우리 교구의 일부였다. 지금도 조가 고향에 돌아오면

일요일 미사에서 그를 본다”면서 “조의 믿음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의 신념과 가치관, 조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보수파와 반낙태 지지 운동가들은 바이든이 생명의 존엄성과 결혼의 전통적 정의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 보수 성향의 가톨릭 지도자인 레이먼드 버크(Raymond Burke) 추기경은 바이든의 정책관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유틸리티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ings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3020 Wilshire BL)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Pell Grant)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Cal Grant)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12월 입학허가시 \$300불)

이벤트 2 화상입학설명회

- 일시 및 시간 : 10월 29일(목) 오후 4시**
 학교 홈페이지의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 (gm.edu/online)
 Zoom Interview : 726-399-1642 / pw: 2020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 714-525-0088(대표)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 간호사들이 드라이브스루로 독감 예방 주사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남가주 전역에서 진행된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에 49만 9844달러 모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 모여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이하GBC)이 10월 9일 하루 동안 ‘공개 헌금의 날’을 진행한 가운데 49만 9844달러를 모금했다고 15일 발표했다.

GBC는 LA, 애너하임, 다이아몬

드바, 플러튼, 가든글로브, 부에나 파크, 라팔마 등 남가주 각 지역 한인마켓 부스에서 10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공개헌금을 진행했으며, 40여명의 진행자와 게스트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집 생방송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또 GBC는 부스외에도 얼바인 온누리교회, 토렌스 남가주살롬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충현선교회 주차장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헌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메디컬그룹과 30여명의 남가주 한인 간호사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독감예방 접종도 함께 실

시했다. 이영선 사장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에 각계 각층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청취자들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현장이었다”며 “250여명의 사전 참여자를 포함해 전화 참여와 총 12개의 부스를 방문해주신 1천100여 명의 청취자

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GBC는 이날 헌금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후원 감소를 대비해 방송국 운영비용과 노후 방송 송출 장비 교체 및 보안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미주대한신학대학교 필리핀에 첫 지교회 설립

필리핀 지역 복음화 및 목회자 재교육 위해 1만1천달러 쾌척



양철지봉으로 만들어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현지 그레이스선교교회 성도들 ©미주대한신학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총장 김창현 박사)가 첫번째 지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필리핀 민도로 지방에 세워지는 그레이스선교교회는 현지인 아리엘 목사(48)가 담임하며 현재 15가정에서 50여 명의 성도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롭게 건출될 그레이스선교교회는 20평 규모로 시멘트 벽돌과 양철지붕, 철근 기둥과 빔으로 세워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양대학교 이은규 전 총장, 김광영 장로, 권재천 목사, 이순권 목사, 강지원 목사 등이 1만1천 달러를 내놓았다. 재단이사장 류당열牧사는 “새

롭게 세워질 그레이스선교교회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문물이 발달해있고 동시에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망양부족 선교를 위한 요충지”라며 “인근지역을 복음화하고 필리핀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신학교육의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아들을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의 10가지 감사기도

이동원 목사의 차남 故 이범 집사의 전국환송예배가 16일 고인이 출석하던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로 나와 인사한 이동원 목사는 아들의 전국환송예배를 위해 원근각처에서 보내준 사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낸 슬픔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가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를 따라 아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기도를 소개했다.

합시다. 5. 어려서 부터 게임을 좋아하 더 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한국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한 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
5. 어려서 부터 게임을 좋아하 더 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7. 수많은 암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8.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 전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스티븐 최 지회장 “지역 복음화와 일터 선교에 앞장서겠다”

미주한인 CBMC 남가주 부에나팍지회 창립

미주한인 CBMC 부에나팍지회(회장 스티븐 최)는 지난 10일, 부에나팍 소재 예순몬테소리 학원에서 지회창립대회를 갖고 지역 복음화와 일터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스티븐 최 지회장은 “부에나팍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회와 일터가 변화되길 소망한다”며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 한 가운데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다른 지회와 협력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1부 경건회와 2부 창립대회로 진행됐으며, 경건회는 부에나팍지회 지도 목사인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한기형 목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하자”(창 50:18-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미주한인 CBMC 남가주 부에나팍지회 창립 대회.

다. 한기형 목사는 “CBMC 부에나팍지회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창조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 일터가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지역이 되도록 힘쓰자”고 설교했다. 이어진 창립대회는 부에나팍지

회 최해나 부회장의 창립경과 보고에 이어 미주한인 CBMC 황선철 총회장이 창립 선언과 함께 축사를 전했다.

한편 CBMC 부에나팍 지회는 황선철 회장, 안신기 목사, 박영선 시의원, 최순자 원장, 발립 민 사장, 크리스 안 사장, 스티븐 최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 9월 CBMC 준비위원회 모임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매주 정기모임을 갖고 창립을 준비해왔다. 당초 2월에 지회 창립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연기하다 이번에 창립대회를 갖게됐다.

CBMC 부에나팍 지회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CBMC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로 이후 풀러턴, 엘바인 지역에 지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 909)677-0028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오픈뱅크 수익 10% 사회 환원, 비영리단체 지원 신청 접수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0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나눔 실천에 나선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이 2020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지난해 처음 지원 신청을 받았던 텍사스주에서도 올해 지원 단체 모집에 나선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25일(수)이며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비접촉 접수를 받기로 해 우편으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과정도 현장 방문 보다는 전화 및 화상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이 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거쳐 지원금 전달은 내년 3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오픈뱅크 각 지점 또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 213-593-4885

라이트&솔트 회장, “성서적 가치에 투표 않는 것은 가장 큰 죄”

미국의 성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솔트앤라이트협의회(Salt & Light Council)가 최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알맞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성서 유권자(Biblical Voter)’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플랫폼을 대조하여, 선거 비디오, 후보 질문지, 의회 점수표를 보여 줌으로써 교회들과 목회자에게 후보자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드란 리스(Dran Reese) 솔트앤라이트협의회 회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적 투표를 하지 않고 교회의 다른 사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정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로 투표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회장은 “나는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그들은 다



솔트앤라이트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 © Salt & Light Council

음 세대를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들의 지속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50개 주의 ‘반낙태’, ‘보수주의’, ‘독립단체’에 속한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를 모아, 후보를 신앙이 아닌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쉬운 투표 막바지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이트가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는 ‘성경적 유권자 등록

세트’, ‘초당파 유권자 안내서 모음’과 ‘목회자들을 위한 전용 자원’ 등이 있다.

이 사이트가 민주당과 공화당 플랫폼을 비교한 ‘61가지 차이점 목록’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 플랫폼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앙 관련 단어들은 대부분 민주당 플랫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 플랫폼에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언급하지 않고, 낙태를 지지하며, 종교의 자유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김유진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인화시켰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드림), 주선영목사(성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미주대표), 신장원목사(복음선대 대표), 유권지목사(홍일모 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지금까지 3년 5개월간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의인화시켰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화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책크로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공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공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1대 온라인 화상 총회 공고 및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접수 공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3 말씀)

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51대 총회를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주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총회에 참여하고, 그 이외 총대는 온라인 화상에서 총회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준비하며 공고합니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하여 남가주교회와 기독교체를 겸손히 섬기고 성실히 정직하게 봉사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보 등록을 바랍니다. 각 교회와 단체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소망합니다.

- 총회일시 : 주후 2020년 11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Zoom (총대 등록시 온라인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총회 총대 등록 : 1. 성함 2. 단체인명 3. 연락처 4. 회비
 - 총회 총대 마감일 : 총회일 오전 도착분
 - 총회 우편 등록 : 본회 사무실 (3200 Wilshire Blvd, #1205, L.A., CA 90010)
 - 문의 : 이승렬 목사 (213-884-8156)

- 후보 등록 안내**
- 구비서류 : 1. 이력서 2. 목사안수증명서 3. 교단 혹은 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 추천서 4. 최종학력증명서 (M.Div. 기준) 5. 시무교회 주보 6. 발전기금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서류 접수 마감일 : 주후 2020년 10월 27일 도착분
 - 접수처 : 본회 사무실 (3200 Wilshire Blvd, #1205, L.A., CA 90010)
 - 문의 : 최영하 목사 (213-999-1923)

- 제17조 (임원의 자격)**
1. 회장 :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남가주에서 3년 이상 계속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수석 부회장 : 회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단 부회장을 거친 자로 한다.
 3. 부회장 :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자로 남가주에서 3년 이상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나 현재 시무 장로 및 시무 권사로 하되, 담임 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 정완기 목사 공천위원장 : 김재을 목사
총무 : 이승렬 목사 공천위원회 서기 : 최영하 목사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9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5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멕시코 민족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서서(3)”

이달 24일(토)에 본교의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난 5월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20회 졸업식 및 필자의 신학대학장 취임식을 갖는다. 지금 학교 안은 이번 주말에 있을 기념식과 행사를 준비하며 학생들과 스태프 그리고 선교사 가정들도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17명의 졸업생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한 명 두 명 학교로 모이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찬양 연습과 손님맞이 대청소를 일과 후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문들 중 몇 시간 거리의 사역지에서 목회하는 선배들도 휴가를 얻어 모교의 졸업식과 기념식 행사를 돕기 위해 미리 도착한 이들도 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전교단이 멕시코 선교지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남쪽 지역을 맡았던 미국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던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단을 만들었다. 멕시코 민족 장로교단이다. 올해가 교단 창립 150주년이 되었다.

교단 산하 71개 노회, 3500개 교회가 있는 큰 교단으로 발전하였으나 대부분 교회가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남부 치아파스 지역만 해도 한국 남북한의 땅보다 큰 지역이다. 중부와 북부지역에는 교단 교회들이 거의 없던 시기에 우리 신학교가 북부 국경 지역의 도시인 멕시코칼리에 세워졌다. 물론 24년 전 한국 파송 선교사인 임원석/임경옥 선교사 부부가 와서 신학교 비전을 갖고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장로교단과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학교가 발전되면서 남부 치아파스 지역의 장로교회들이 학생들을 추천하여 보내면서 멕시코 장로교단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22주년을 맞는 지금은 이제 교단 산하의 5개 신학교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교단은 물론 멕시코 개신교회 전체에서 바람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본교 출신의 학생들이 유교 목사처럼 남부 고향 지역으로 되돌아 가지 않고 중부 북부지역의 곳곳에서 교회 개척을 한 것이다. 이미 30여 개의 교회들이 새로 세워져서 북부의 노회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바하칼리포니아 장로회 신학교가 멕시코 중부, 북부지역의 교회 부흥에 거의 독보적으로 기여하게 되면서 훌륭한 모범이 되는 동문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멕시코 장로교단의 입지를 아름답고 선하게 넓히게 되었다. 오늘 교단 총회장이 전화를 했다. 멕시코 장로교단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역사와 사역을 책자에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우리 선교사들은 즉시 상의하였고 기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속)

헬라 철학에 정통한 바울의 설교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풍성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페쉬는 아테네의 바울 설교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문화적 강을 넘어 복음을 적당하게 전한 사례입니다. 아테네 설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헬레니즘의 심장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설교는 인문학적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마틴 디벨리우스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디벨리우스는 사도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설교를 가장 탁월한 헬라적인 설교로 인정하며 사도행전의 정점(Climax)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벨리우스는 아테네의 사역은 결신자도 적고 실패한 설교 혹은 실패한 설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가 회심합니다. 그의 직책은 아테네의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됩니다. 또 유세비우스는 디오누시오의 여러 행적을 전합니다. 요컨대 디오누시오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 설교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테네의 경험이 다른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닮은 고린도 선교에 큰 결실을 남깁니다.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행18:5).

나아가 그는 아시아의 아테네였던 에베소 사역에서도 크게 성공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에 가기를 사모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 선교 활동에서 바울은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지식인들을 위한 두란노사역도 활발합니다. 에베소 사역에 힘을 얻은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선교(행19:10, 26)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 선교로 계시록의 7교회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개척한 것으로 유추합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한 장면을 소개하는 행19:26을 주목합니다. “(전략)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후략)”라는 구절은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을 설득할 때 사용했던 말씀(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행17:24b)과 흡사합니다. 이는 당대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에게서 빌려왔거나 세네카의 말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세네카의 말이 다섯 번 인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투스 와 더불어 스토아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세네카는 네로 스승이었지만 네로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철학을 만날 때 취할 태도의 모범이 됩니다. 행 17장 25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라며 하나님을 논증합니다. 이 말은 세네카의 말(신이 인간들을 섬

기려 하기 때문에 신은 섬기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26절도 세네카의 말과 거의 같다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던 스토아학파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당시 네로 황제의 멘토로 유명세를 탔던 세네카의 신론(神論)을 인용하며 참신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순식간에 바울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들이 가진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주는 강한 설득력이 느껴집니다.

세네카는 뛰어난 문필가입니다. 세네카가 남긴 위로의 글(“마르키아 여사에게 보내는 위로,” “풀리오 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아르미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등)들은 그가 탁월한 문필가였음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세네카는 까다로운 스토아철학을 쉬운 언어로 남겼습니다. 그의 “행복한 삶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등은 스토아 철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작품들이고 더불어 그는 당대 유명인사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세네카는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 모인 철학자들과 시민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세네카의 명문장들을 인용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에 충실했던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들보다 세네카를 더 잘 아는 바울의 논리에 감복하였을 것 같습니다.

몇몇 신약신학자들은 헬라철학을 사용한 바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헬라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헬라의 수사학, 문학 그리고 철학으로 구비한 인문학자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철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지에서 뛰어나는 코어와 현대 빈곤 해결을 사명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뉴잉글랜드 청교도 신앙과 현대 복음주의 교회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청교도"라는 제목의 이 동상은 Augustus Saint-Gaudens (1848-1907)가 만든 것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주의 서부도시)에 세운 것이다. 이 동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James Atkinson, ed., In Homage to Worthy Ancestors: The Puritan, The Pilgrim (2011)에 담겨있다. 미국 자선단체인 the Laurence Levine Charitable Fund, Inc.,에서 기금을 후원했다.

청교도 운동은 지난 사백 여 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기여들을 지금까지도 발휘하고 있다. 근대 사회의 발전된 국가와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였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청교도 사상에서 받은 영향과 유익들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청교도 운동은 교회의 개혁과 신앙 윤리의 갱신과 사회 경제 발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유럽의 근대 정치체제와 도덕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오늘날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과 그 밖에 번영을 구가하는 세계 일등 국가들의 문화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체제가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적인 가치체제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형성되어 왔던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차분히 생각한다면, 뉴잉글랜드 건국의 조상이 가졌던 청교도 사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프

"미국의 정체성은 두 가지, 자유의 정신과 신앙의 정신이다; 이는 청교도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나의 조국 프랑스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

랑스 사상가 토크빌은 미국의 발전하는 상황과 그 근원들에 대해서 청교도 사상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였다.

1. 현대 복음주의는 청교도에게서 뿌리를 찾아야 한다

청교도 운동이 남긴 유산을 가장 많이 계승한 기독교 운동이 현대교회에 널리 확산되어져 있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 교회 내에서 "복음주의" 운동(Evangelicalism)이 활발하였고, 정통신앙의 대명사처럼 "복음적인 교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다 "청교도 신앙과 경건" (Puritanism) 을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저술가들의 경건서적들이 엄청나게 제공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지침들을 오늘날 부흥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설교자들이 재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청교도 신앙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음주의 정신이라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용도 모호하고, 신학사상도 혼합적인 용어 "복음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안타깝게도 현대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성취하려는 가치관을 먼저 제시하였던 "청교도 신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수용하는 데 더욱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만 순수한 기독교 교회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청교도 사상이 다 옳았다거나, 청교도 시대의 사고방식과 교회봉사가 원칙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회귀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다. 청교도는 다소 오래된 "구식 신앙" (Old Truth)이고, 복음주의는 세련된 현대적 신앙인처럼 착각하게 현대 신학자들

이 왜곡하고 말았다. 그러나 청교도 신앙이야말로 "고전적인 복음주의"(Old Evangelicalism)이다. 이안 머레이가 남긴 청교도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주목해야할 청교도의 유산은 두 가지, 교회의 갱신과 신앙의 부흥이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갱신과 각성을 촉구했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현대 복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업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에 뒤섞인 현대 교회가 정신 차려서 청교도들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청교도들은 유럽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면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정통신앙으로 채용하였다. 청교도의 마지막 세대로 알려진 요나단 에드워즈 (1703-1758)까지 개혁주의 정통교리가 그대로 계승되어져 내려왔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칼빈주의 정통신학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서는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면서 "구학과"와 "신학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국 장로교회의 요람이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나누어졌다.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청교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 청교도의 열정은 부흥운동가들과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자발적인 결단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건의 요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본질로 하고 있다. 청교도 신앙은 "뜨거운 개신교회"라고 부르지만, 부흥회에서 집단적으로 열광하면서 종교적 감정에 휩싸이는 신비적 체험 등이 아니었다. 조지 윌필드가 분별력 있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간파하였듯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치우치는 현대 은사운동을 경계해야만 한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신앙은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계승했는데, 일부 회중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유니테리언리즘으로 기울면서 고전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거부했다. 대각성운동에서 인기영합주의와 감정주의를 배척한 에드워즈는 칼빈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성적인 배움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유니테리언리즘이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청교도의 영향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빛어진 신학사조이다. 17세기 청교도 신앙은 "옛 시대의 종교"라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 그 배경에서 남북 전쟁을 거친 후, 민주주의 제도를 꽃피웠다. 왕권의 강압과 지배를 거부했듯이,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을 구출해 낸 것이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6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실내 예배 벌금 22만 달러...캘리포니아 목회자,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집합 제한 명령 불구하고 실내에서 예배드린 혐의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예배를 드린 혐의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교회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산호세에 위치한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의 마이크 맥클루어(Mike McClure)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실내 예배를 드려,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 22만 달러(약 2억 5,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은 '신앙및자유수호'(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AFF)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갈보리채플의 모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

고 있다.

AFF의 로버트 타이러(Robert Tyler) 대표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카운티가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진정 염려하고, 과학이 벌금(부과)을 지지한다고 믿고, 교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데서 나아가 모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맥클루어 목사는 카운티 공무원들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맥클루어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린 이유와 관련, "보라, 우리는 이 정치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인간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이다. 이는 도지사를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챙기기 위한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교회 제공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카운티의 월마트가 '필수'로 여겨져서 문을 연다면, 교회도 그렇다. 심지어 월마트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같은 카운티의 노스밸리침례교회(North Valley Baptist Church) 잭 트리버(Jack Trieber) 목사는 집

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11만 2000달러(약 1억 2000만 원)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자, 예배 장소를 야외인 교회 주차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카운티는 여전히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3,000석 규모의 이 교회는 실내 예배로 인한 벌금 5,000달러(약 570만 원)에 찬양으로 추가 벌금을 물

어야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온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존 맥아더(John McArthur) 목사가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경고 편지를 최근 받았다.

CP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교도소 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왔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어서 가져와 보라"고 덧붙였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주일 설교에서 "그레이스교회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와 관련, "LA시가 첫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미 성공회 예배 참석률, 10년 전보다 25% 더 감소



워싱턴 DC에 위치한 워싱턴 국립대성당. 미국 성공회 교회들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Courtesy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미국 성공회의 주일 예배 참석률이 2009년 이후 4분의 1 가까이 감소하며 교단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지난 주에 발표된 성공회 교단 보고서에는 2019년 활동 중인 세례교인(active baptized members)은 약 163만 명이며,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는 약 51만8000명이었다.

특히 교단 보고서 중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주일 평균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에 약 72만4천 명에 비해 24.5%가 줄어 들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작년에 활동한 세례교인 수는 4만 명이 줄었고,

주일예배 참석자는 1만3천 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당시, 활동 교인 수 177만 명, 주일 예배 참석수 57만 9천 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성공회는 교인과 예배 참석자 수는 감소했지만, 교단 재원은 다른 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 1인당 평균 헌금은 3087달러로 2015년보다 300달러 이상 많았다. 또 교단 총 재원은 2018년 약 23억 5000만 달러에서 2019년 24억 4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성공회는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지출 비용도 증가해 2018년 22억6700만 달러에서 2019년에 22

억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성공회 총회의 부집행관인 몰리 제임스(Molly James) 목사는 보고서에 대해 "성공회 신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으며 (...) 앞으로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 교회가 적응한 놀라운 방법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종교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의 성공회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월튼(Jeffrey Walton)은 최근의 수치를 볼 때, 성공회가 "많은 작은 나쁜 일들로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월튼은 IRD 블로그에서 2019년의 통계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참석률 감소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며 "미국 북동부, 중서부 및 오대호 지역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계속되는 반면, 남부와 서부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튼의 분석에 따르면 교단의 주요 손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 신학과 최근 진보적인 지도력을 가진 교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참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뉴햄프셔 주의 진보 교구(15.6%)"이며 "서부 메사추세츠 주(9%), 뉴와크 (7.9%)" 순이라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美 장관 "공공장소 내 성경 철거, 종교차별금지 위반"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벤 카슨 박사는 오클라호마주(州)의 시니어 아파트 소유·관리자를 공공장소에서 성경 등 종교 문서를 철거하여 공정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슨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공정 주택법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며 "종교 자료를 금지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전통을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 주택법은 주택 및 주택 관련 서비스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사풀파타임즈(Sapulpa Times)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보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윌호이트 프로퍼티스(Wilhoit Properties)는 116개 보조생활시설 관리자에게 주민 공용 도서관에서 성경 및 기독교 관련 책들을 없애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캐리지 크로싱(Carriage Crossing)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카슨 장관 앞으로 성경 및 기타 기독교 관련 책들이 철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풀파타임즈는 "16개 주(州)에서 200여 채의 건물을 관리하는 윌호이트 프로퍼티스는 공동구



벤 카슨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미 주택도시개발부

역을 이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성경책과 기독교 관련 책들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 알렌(Vaye Allen)이라는 이름의 한 주민이 공동 구역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천사가 사용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 이 같은 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정주택법을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별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슨 장관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주택도시개발부는 화해와 자발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기소가 될 경우, 합의나 행정결정, 법무부 회부 등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한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7000명 줄어든 윌로우크릭 교회, “잃어버린 자들 찾아야”



윌로우크릭교회 예배 전경. ©윌로우크릭교회

미국 윌로우크릭 교회 담임인 데이비드 더밋(David Dummitt)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교회의 비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 자를 끈질기게 찾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예수의 비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더밋 목사는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세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 교회에 부임한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8년 빌 하이벨스 전 담임목사가 성추행 의혹이 있기 전까지 이 교회는 매주 1만8000여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나 하이벨스 목사가 사임한 후로 교회는 담임 없이 예배 참석자만 7000여 명이 줄었다.

교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이 교회의 대형 캠퍼스 건물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더밋은 밝혔다. 그는 비 기독교인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교회 뒤편의 식당, 스포츠 및 회의 장소 등을 활용했고 “교회 건물을 방문하는 것이 익숙해지자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더밋은 또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환경에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고 싶어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과 장의자, 종교적인 상징물을 뺀 교회 건물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공공의 공간이었다. 지금 우리

의 가장 큰 공공 공간은 인터넷이다”며 “과거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써서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회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윌로우크릭 교회는 2021년까지 현장 예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밋은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도 새로운 기독교인을 키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전도 작업은 소그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소그룹들을 가진 교회가 아닌 소그룹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인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년 라이프웨이 가 발표한 ‘전국 교회 개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하고 기존에 오래된 교회보다 더 많은 비신자들이 모여며, 세 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더밋 목사는 향후 2년 안에 새로운 캠퍼스를 개척하여, 미국과 국제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윌로우크릭이 계속 성장하려면 최근의 위기 이후, 신뢰감을 다시 쌓을 필요가 있다”면서 “지도자들은 결정에 대해 성도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위키피디아, 동성결혼 반대하는 표현 제한



©위키피디아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편집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표현 게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동 창립자인 래리 생어가 위키피디아의 중립 정책이 “사망했다”고 발언한지 몇달 후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표시인 ‘유저박스’(userbox)를 프로필 페이지에 포함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저박스에는 “이 사용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좌파 성향의 편집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입장이 “차별적”이며 사이트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후 내려졌다고 브레itbart(Breitbart)는 보도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중 편집자 아담 쿠에르텐은 당초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하나의 유저박스를 삭제하고 선동적이거나 분열을 금지하는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곧 전통적인 결혼에 찬성하는 다른 유저박스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자인 ‘Ad Orientem’은 “그같은 결정이 중립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약속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

통적인 결혼 지지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견해를 비난하는 추악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위키피디아 공동 설립자 생어는 이 사이트의 “중립적 관점이 사망했다”(NPOV, or neutral point of view, is dead)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 웹사이트에 “오래전부터 위키피디아의 원래 정책인 효과적 중립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가 게시한 ‘예수’에 대한 글을 언급하면서 생어는 “이 기사에서 위키피디아는 단순하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도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의 다른 곳에는 ‘복음은 예수의 삶에 대한 독립적이거나 일관된 기록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떤 귀인이나 자각 없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이 기사는 예수에 대한 ‘자유주의적’ 학문적 토론으로 설명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 또는 정통적 견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 미션 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전 11: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를 위한, 영혼을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토)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모델링예배(분당) (토)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주교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나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토)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주조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찬양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리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 9393-5887 T. (818) 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산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종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스위스 출신 말리 선교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살해



베아트리스 스토클리(Beatrice Stockly) 선교사의 생전 모습.

스위스 출신의 여성 선교사가 한 달 전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한국언론도가 14일 밝혔다.

베아트리스 스토클리(Beatrice Stockly) 선교사는 지난 2016년 1월 8일 말리의 팀북투(Timbuktu)에 소재한 그녀의 자택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당시 공개된 8분짜리 동영상 속에 등장한 알카에다 대원은 영국식 억양으로 "사하라 지역의 우리 이슬람 마그레브가 이 기독교인을 납치했다. 그녀는 세속적인 삶의 부스러기들로, 이슬람 지역의 많은 이들을 세속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방 조건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 있는 알카에다 대원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를 비롯, 말리 정부에 수감된 동료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지난 10월 8일 석방된 다른 4명의 인질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프랑스 여성 구호사역자인 소피는 베아트리스 선교사가 자신들이 석방되기 한 달 전쯤 죽임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스위스 외무성도 이 같은 소식을 확인하며 애도를 표했다.

베아트리스 선교사는 2000년 팀북투에 도착한 후 한 스위스교회에서 협력하다가 독자 사역을 했다. 지하디스트 무장단체들이 자주 나타나는 팀북투 아바라조우에서 생활한 그녀는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교적으로 기억되고, 꽃을 팔면서 기독교 자료들을 나눠주곤 했다고 함께 사역했던 말리의 교회 지도자가 전했다.

스토클리 선교사는 2012년 4월에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가, 부르키나파소 당국의 중재로 풀려났다. 당시 그녀는 어머니와 형제의 간청으로 스스로 돌아갔다가 '팀북투가 전부'라며 말리로 돌아와 사역했다.

말리 북부는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내전 중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했다가,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프랑스군에 의해 몰려났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 내에서 산발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단체로 JNIM(Jama'at Nasr al-Islam wal Muslim)을 지목했다. JNIM은 말리에서 2017년 3월 결성된 지하디스트 단체들과 연계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 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은 "4년간 말리 정부와 국제 파트너들이 그녀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시신 수습 및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유엔 인권위, 중국·파키스탄·러시아 등 이사국 선정



UN 본부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쿠바 등 종교 자유 침해가 심각한 국가들이 47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중 15개 신입 이사국으로 선정되자 인권 단체들이 반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인권단체인 유엔 와치(UN Watch)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오늘은 인권에서의 암흑의 날"이라며 "이 독재국들을 유엔의 인권 심판으로 선출한 것은, 마치 방화범 무리를 소방대에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는 지난 13일 15개 신입 이사국을 선출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결의안 뿐 아니라 종교자 유침해에 대한 조사도 총괄한다.

선출된 국가들 중에는 미 국무부가 종교 자유침해 특별우려국으로 또는 특별감시국 명단에 올린 국가들도 포함돼 있었다.

인권이사회의 의석은 지역별로 배분된다. 이날 선출된 15개국 의원들 중 대부분은 경쟁 없이 선출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의석을, 멕시코, 쿠바, 볼리비아는 남미/캐리비안 지역의 3개 의석을 차지했다. 쿠바와 러시아는 반대에 부딪힌 국가들이었다.

57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경쟁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이사국에 선정됐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20일 선거를 앞두고 중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쿠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의

인권 관련 실적이 인권이사국으로서 '부적격'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 와치에 의하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민주적 국가가 60%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조롱을 일삼는, 정치적이고 자기 이익을 찾는 조직'"이라고 비난한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의 직후 트위터에 "중국, 러시아, 쿠바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한 것은 미국이 2018년 인권이사회를 떠나기로 한 이유를 분명하게 해 준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와치 소피 리차드슨 국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산업적 차원의 인권 침해'와 '평화적 비판자들의 수감에 따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리차드슨 국장은 "다른 유엔 포럼에서도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아리오 디 바(Diario de Cuba)에 따르면, 85개에 달하는 쿠바 인권 단체와 독립적인 언론 매체들이 쿠바의 5번째 이사회 선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기독교 박해국 순위 46위를 기록 중인 러시아는 156표를 얻었다. 러시아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시행해 러시아정교회 이외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국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김유진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거듭남의 바른 의미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을 말한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다. 또한 새 영 즉 성령이 내주하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3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하리하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어도 그 부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알 수 없는 신비다.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마음의 상태가 새롭게 된 사람이다.

굳은 마음(히브리어 성경에는 돌로 된 마음으로 쓰고 있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히브리어 성경에는 고기로 된 마음)이 되게 만드십니다. 거듭남은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이다.

그렇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과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거듭남 사람이 맞는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죄를 미워하며 회개를 통해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자.

요한복음 3장 1절 - 8절

성경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 짓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3:5)”며, ‘거듭남’을 천국 입성의 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같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에 입성할 미지의 세계만이 아닌, 금생에서 경험하며 교감하는 현재적 세계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지 타계지향적인 신앙 교리로 서가 아닌, 죽은 영(靈)이 살아나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한 결과이며(요 3:3),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결과이다(엢 2:5-6).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에서 ‘보다(εἶδον)’는 경험하다(experience), 참여 하다(participate), 인식하다(perceive) 등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하면 ‘거듭남이 천국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다.

원래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지만,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에스겔 36장에서 인용된 것으로 바라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사람은 맑은 물로 뿌려져서 정결하게 된 사람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before my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고백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붙여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며 호소’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사람 탓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용어로 거창하고 종교적인 말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솔직 담백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86:1-3)” 다윗은 “하나님 내 삶에 가난하고 궁핍한 환난 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오직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종을 구원하십시오. (시 85:3-4)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아도나이가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환난을 맡겨야 하고 신뢰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86:1-10

마크로 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5년 전부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은 세계가 경계해야 하는 전시 상황 (War Time)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빌게이츠는 “나는 이 바이러스를 ‘중요한 교정자(great corrector)’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중요한 교정자(great corrector)>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위대한 교정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나 이후에 펼쳐질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로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일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렘 33:3)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고 창조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힘 없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사람, 현실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다윗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Leap over a wall)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은 바로 삶에 닥쳐오는 벽을 뛰어넘어 달리는 사람(시 18:29)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밀함(with my God)과 어디서나

칭의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서 벗어나라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지난 주에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발표했다. 그 기고문을 읽은 일부 독자들이 칭의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주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과 오해에 빠져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이자 복음주의 개신교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는 칭의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교리”(justificatio est 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 - “justification is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and falls.”)라고 선포한 바 있다. 루터에 따르면 교회가 칭의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에 칭의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와 같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

1. 칭의의 의미는 “의롭다고 칭한다” 또는 “의롭다고 선포하고, 인정한다”이다.
2.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영단변의 사건이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 (declare)하시고 인쳐주시는 (seal) 사건이다. 그리고 이 칭의의 사건은 영단변 (once and for all)의 사건이다. 따라서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나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칭의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complete forgiveness). 물론 여기서 사해주시미란 죄의 현존 (presence of sin)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 (guilt)을 제거하고,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condemnation and judgment)이 사라지며, 죄에 대한 형벌 (penalty/punishment)이 제거되는 것이다. 칭의의 사건 후에도 죄는 그대로 그리스도인 안에 현존한다.
3.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God’s action).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칭의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격없는, 공로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sola gratia) 오직 믿음을 통하여 (sola fide) 칭의된다.
4. 칭의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뤄지는 사건이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인의 회개가 필요하다. 죄인은 자신의 죄와

1. 죄된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앞에 나아와 자신이 정죄와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때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 연합에 기초해서 칭의의 선언이 이뤄진다. 따라서 칭의의 사건에서 믿음도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통로와 채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거룩한 교환 (holy exchange)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죄인에게 전가 (imputation)되고, 죄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인 복된 것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된다. 즉 예수님의 의, 거룩, 성결, 지혜, 능력,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죄와 비참과 저주와 정죄와 형벌은 주님의 것이 된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정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
3.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위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아래로 당신의 이웃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행하신 것이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1. 몸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인은 그의 옷을 입게 되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인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죄의 현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은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리고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므로 칭의는 자유와 해방의 사건이다.
3.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의 구원이 확정된다. 즉 모든 칭의된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성화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물론 칭의된 대부분의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칭의된 사람들 중의 일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가 그 실례이다. 또한 임종시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가 아니라 칭의로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성화는 이미 확정된 구원의 열매요,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선행으로

1.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리”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확정된다. 선행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2. 칭의의 사건이 있더라도 죄인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인이 영화될 때 사라진다.
3. 칭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가지 복스러운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회심과 중생과 연합과 양자와 성령세례/내주/인치심과 확정적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등이다. 확정적 성화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시는 사건이다. 확정적 성화의 사건이 있는 후에 비로소 점진적이고 실재적인 성화 (progressive and practical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진행된다.
4. 칭의와 확정적 성화는 죄인 밖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반면에 점진적/실재적 성화는 죄인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혹은 경험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5. 칭의는 취소될 수 없다. 따라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만일 어떤 신자가 수십년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나중에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애초부터 참된 믿음으로 거듭남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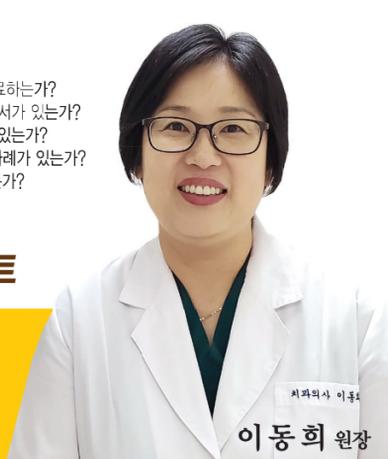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머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관절염, 테니스 엘보우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암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적통일의 가정천국을

마태복음 10:34-4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랬더니 '아이고 고맙다.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작은 아버지 머리 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족 중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하는 확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아버님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저를 때려가면서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상당히 소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 분이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영적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분은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은 뻔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과 회개도 없이, 성령과도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분은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을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2.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것은 헬라어 '뉘나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도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면 다 깨지고 박살나서 가루가 됩니다. 여기서 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셔야 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고침 받아 자연인으로 바로 썼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라 하셨습니다. 고쳐주라는 것은 네 의술이나 네 방법으로 고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대상자가 병든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려 갔

을 때 심각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침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의 기쁨제가 됩니다. 집회마치고 떠날 때에 병을 고침 받은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며 감사 목사인 나에게 만분의 선 고비를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양합니다. 제가 그분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고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니 제가 돈을 받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것을 종자돈으로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며 다시 돌려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하셨습니다. 복음이 빛을 잃고,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은 돈을 거두어 챙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섬겨라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풍자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만큼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아주 세밀하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당신에게 누가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늘나

라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조금도 값어치가 없다. 한 줌 흙에 불과하다.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라. 당신이 나를 죽인 후에도 당신이 회개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올 수 있길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그 분에게 내 인생을 영육간에 온전히 맡겼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아무개는 진짜 구원 얻은 성도라고 보증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그 분이 나를 구원 얻게 하려고 죄인들에게 뺨도 맞고, 침 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 형틀에 속절없이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남편, 아빠,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허세와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더 낮아져서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이 악을 울리고, 자극을 줄지라도 웃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런 섬김의 덕을 끝까지 세우게 될 때 완악한 남편도 언젠가는 '교회는 인생 재생창(再生廠)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은 복음화 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 다.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길을 가고 맙니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사주를 받습니 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구원 얻은 가족 중, 몇 명을 아주 원수 대하듯 합니다. '교회는 왜 가느냐, 헌금은 왜 하느냐!'고 여러 가지로 시비하고 대적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핍박도 참아라

34-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수양이 덜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삼촌께서 저를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육신이 덜 죽어서 그만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평생 두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하는 후회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중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삼촌께서도 핍박했던 일들을 후회하시며 저를 불러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해서 훈책 하신 것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작은 아버님을 용서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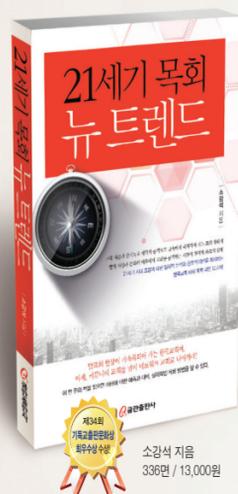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년도 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노비실리언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역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콤란, 콤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콤란출판사

[김도인의 아트독서 60] '접촉 최소화하는 연결' 로 전환하라

코로나 언택트 시대 온택트 문화 속,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드라이브 인 워십(Drive In worship)' 예배를 진행한 서울세티교회에서 담임 조희서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에서 큐티책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하는 모습.

세상에 혁명이 일어났다. 코로나 19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 완전히 뒤바뀐 혁명을 경험한 것 이상의 사회가 되었다.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30초 동안 손 씻기 등등 방역 지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 매일 어제 확진자 수, 어제 사망자 수를 듣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통계까지 들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세계 최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그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미국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삶,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뉴 노멀을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 콘텐츠의 시대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전보다 열정을 배 이상 불태워야 한다.

언택트(Untact) 시대, 온택트(Ontact) 문화 속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이에 대한 생각을 통해 교회의 미래, 목회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코로나19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19, 세상을 바꿔 놓았다.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상황이 이야기되고도 남을 것이다.

필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무지하기엔, 길어야 1년 전후 같 줄 알았다. 2020년 8월 코로나19 재확산을 보면서, 최소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미 과거 전염병을 경험한 때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 1918년에 처음 발생해 20세기 유럽을 재앙에 빠뜨렸던 스페인 독감도 2년 동안 지속되었다. 비로소 끝난 것은 전 세계가 60% 감염된 이후다.

지구촌이 세계화되어 있는 지금 발생한 코로나19는 더 오래 갈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스페인 독감처럼 전 세계가 60% 감염 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신 개발도 언제일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3,480만 2,571명(전 세계 인구는 78억명), 사망자는 103만 1,812명이다. 세계 감염률은 0.44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2만 4,091명(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이다. 사망자가 421명이다. 우리나라 치사율은 1.74%다.

세계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미국 83개 국, 중국 34개 국, 한국 13개 국, 유럽에서도 많은 회

사가 개발 중이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러시아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가가 신뢰하지 않는다. 요마이 크 라이언(Mike Ryan) WHO 긴급 대응팀장은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코로나19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백신 개발은 적어도 3년은 갈 것 같다. 빨라야 2022년에는 돼야 끝날 것 같다.

TV에서 어느 전문가가 백신 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이 4년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에도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코로나19는 변이가 빠르기에 백신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3년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다.

코로나19는 교회를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구할 직장 자체가 거의 없는 청년층,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한국교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큰 양초를 만난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하긴 삼성전자도 어렵다고 한다. 삼성전자도, 어렵다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대기업인 삼성이 어렵다고 하듯이, 대형교회들도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교회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했다. 교회는 대구 신천지로 촉발된 코로나19 진원지로 받아들여졌다. 재확산 진원지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광화문 집회라고 한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교회의 확진자 발생이다. 방역당국과 언론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교회를 언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결국 사회에서 악의 축(?)과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만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도 실추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위기다.' 그 말은 교회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도 된다. 위기가 오면 변화를 꾀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더욱 더 열정을 불태우기 때문이다.

교회는 3년을 코로나19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가 위기이기 전에, 한국 사회가 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 삶이 위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대면 일상을 비대면 일상으로 바꾸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게 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없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다. 자신도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교회는 3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 교회만 3년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도 3년이 주어졌다.

3년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코로나19는 목회자들을 사역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언택트 시대이므로 사역이 축소되어 마음껏 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역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인 양육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수 중심에서 소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목회자는 이 기간을 자신을 놀랍게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약 3년 전후의 시간이 주어졌다. 3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3년 안에 자신을 탁월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나쁜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에 다시 희망을 걸고자 한다.

매미를 통해 배워야 한다. 매미는 알이 애벌레가 되기까지 1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7년이 지난 뒤 매미가 된다. 7년 걸린 매미가 사는 기간은 고작 7일에서 14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 짧은 기간 매미는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다가 죽는다.

우리에게 3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 기간 사람들이 매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듯, 교회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낼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언택트(Untact) 시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세상은 콘택트(Contact) 시대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선포된 후, 언택트(비대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해졌다. 이 때 새롭게 등장해 급격하게 만들어진 한 트렌드가 언택트다.

언택트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을 붙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고서라도 연결하길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휴교했다. 회사가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가 취소되었다. 그 결과 교류를 최소화하여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자 바뀐 삶 속에서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택트가 코로나19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언택트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던 개념이었다.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하던 전략이었다.

내가 종종 가는 화덕 피자집이나 롯데리아 등에서도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문과 결재를 해 왔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아예 2016년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 매장 아마존고처럼 무인 편의점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에는 언택트가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자 쇼핑, 은행, 교육, 심지어는 직장 생활까지 언택트가 대세다. 언택트가 대세가 되니, 세상은 이미 이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

마케팅에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모바일 흡쇼핑 이용자 10명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에서 계속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비지니미의 흡쇼핑모아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한 1,277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는 대부분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에서 계속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이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2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손쉬움은 물론, 온라인에 완전히 젖어들었다.

온택트(Ontact)를 준비해야 한다

언택트가 시대의 주류가 되고 주목받게 되자,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온택트(Ontact)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말은 언택트 시대에는 온택트 문화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 결과 온택트도 코로나19 이후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온택트의 대표적인 것이 랜선 투어, 랜선 공연, 랜선 팬미팅, 랜선 콘서트, 랜선 콘서트 등이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랜선 결혼식, 랜선 응원까지 등장했다. 방송도 온택트가 대세가

되었다. KBS2에서 온택트로 진행된 나훈아 콘서트는 대성공을 했다.

온택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연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여전히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한다."

인간은 온택트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연결한다. 이 욕망을 잘 파고든 것이 온택트 문화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재편되었다. 온택트로 바뀌면서 온택트로 교류하고 있다.

교회도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교회는 언택트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온택트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사역 등이 언택트로 재편되어야 하는 당위성 앞에서 있다.

교회는 언택트에 적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완벽하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는 언택트가 새로운 기준인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금 온택트로 세상이 교류하고 있다면, 교회도 온택트 문화로 세상과 교류해야 한다.

현경민 외 6인의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1: 온택트, 언택트 시대의 콘택트 기술』에서는 온택트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온택트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기업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온라인 기반의 기업들에게는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온택트가 기업들에게 생존과 경쟁을 위한 키워드가 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생존을 위한 온택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온택트를 해야 한다.

교회는 바이러스가 바꾼 미래, 바이러스가 앞당긴 언택트의 미래, 바이러스가 앞당긴 온택트의 문화 '접촉을 최소화 하는 연결'을 전환해야 한다. 교회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연결'로 전환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인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대표

(<https://cafe.naver.com/judam11>) 저서로는 《독서'광'에서 독서'광'으로》, 《설교는 인문학이다/두란노》, 《설교는 글쓰기다(개정 증보)/CLC》, 《설교자와 목상/CLC》, 《설교를 통해 배운다/CLC》, 《이기는 독서/절판》,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좋은평》, 《아침의 숙제가 저녁에는 축제로/좋은평》, 《출근길, 그 말씀(공저)/CLC》 등이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복음의 '스토리텔러' 되어라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가브리엘 돌란, 야미니 나이두 | 박미연 역
트로이목마 | 248쪽

“더 이상 팩트와 숫자로 설득하지 말고 이야기의 감성으로 승부하라!”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부터 경영을 위한 성공 전략까지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A to Z를 담았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분야 글로벌 리더가 알려주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모든 것'

지금은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치인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장수할 수 없다.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할 때, 팩트에만 무게를 둔다. 비즈니스맨들은 더욱 그렇다. 팩트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팩트가 아니라 스토리로 소통해야 한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팩트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또한 광범위해졌다는 사실은 팩트 자체의 가치를 급속히 떨어뜨렸다. 이는 팩트를 한데 엮어 맥락을 통해 감성적 공감을 제공하는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스토리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호피족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다. “스토리를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팩트는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어만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누구나 팩트를 금방 알 수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리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인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이다. 사람의 행동은 이성애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팩트는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스토리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 행동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특히 리더에게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천일야화〉가 보여준 스토리텔링의 힘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일반과는 다르다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은 스토리텔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스토리텔링의 큰 힘에 대해 〈천일야화〉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천일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매일 새로운 신부와 결혼하지만, 다음 날 신부를 죽여 버리는 왕이 있었다. 날마다 새로운 신부를 찾아내야 하는 신하에게도 고달픈 일이었다. 그가 왕의 신부를 찾아오지 못하면,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의 용감한

딸 세헤라자데는 왕의 다음 신부가 되기를 자청한다. 혼인을 올린 날 밤, 세헤라자데는 왕에게 길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말 직전에 멈춘다.

왕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다. 세헤라자데는 피곤하다며 왕에게 다음 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이 되자 세헤라자데는 그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시 그녀는 결말 직전에 이야기를 멈추고 왕에게 내일 이야기를 끝내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과는 1,001일 밤 동안 계속되었고, 그러는 동안 왕은 세헤라자데를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데 손색이 없다.

특히 이 책은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또한 스토리를 어떻게 빛어내고 빛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특징

저자는 이 책에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과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은 다르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스토리는 첫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한 사람은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1.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을 청중들이 이해할까?
 2.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3. 스토리의 의미를 빠뜨리지 않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스토리를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자료, 즉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행사의 기조연설자로서 스토리를 활용한다면, 확실한 사실이나 데이터, 수치 등을 포함시켜서 스토리가 이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믿을 만해야 한다. 곧 진실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 스토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그렇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지에 큰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트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R. 머로우의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을 만해야

되고, 믿을 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꼭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가지 유형의 스토리텔러

저자는 4가지 유형의 스토리텔러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회피자(The Avoider) 형이다. 회피자 형은 전반적으로 스토리 사용하기를 꺼리고 스토리를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둘째, 조커(Joker) 형이다. 조커 형은 참여도는 높지만 낮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조커 형은 수많은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조커 형은 사람들을 웃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는 힘들다.

셋째, 리포터(The Reporter) 형이다. 리포터 형은 목적의식은 높지만 참여도는 낮다. 리포터 형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팩트, 수치, 통계, 사례 연구, 사업 표본 등과 같이 손에 잡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 못한다.

넷째, 격려자(The Inspirer) 형이다. 격려자형은 참여도도 높고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격려자 형은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중들과 접촉된다. 저자는 격려자 형을 스토리텔러가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토리텔러가 자문해야 할 3가지

그리고 저자는 스토리텔러는 자신의 이야기를 빛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 자신에게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1. 당신의 청중은 누구인가?
2.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3.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은 아무리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청중을 이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아우라이어〉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했다. “연습이란 본인이 잘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예수님도 스토리로 하나님 말씀 전해 연습을 통해 스토리를 완벽히 만들자

그리스도인들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팩트만 전하는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청중을 이해하셨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토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려주셨다.

천국을 설명해주시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이야기를 해주셨다. 예수님의 스토리에 청중은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파는 비즈니스맨이다. 복음을 파는 비즈니스맨은 팩트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뛰어난 말솜씨 스토리텔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연습을 통해 스토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맨들이 고객을 설득시키고 물건을 팔기하기 위해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애를 쓴다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파는 비즈니스맨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브뤼헬의 1598년작 '산상설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찾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0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접수기간 2020년 10월 15일 - 11월 25일

수혜단체 발표 2021년 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